



1월 26일(금) 11:30 (회의종료) 이후 사용

비고	* 모두말씀 별도배포 * 공동배포 :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무조정실 교육문화여성정책관실 문화체육정책과	과장 강동진, 사무관 김성열 (044-200-2328, 2330)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지원단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과장 강대금, 서기관 김명진 (044-203-2791, 2793)

평창 동계올림픽 G-14, 성공 개최를 위해 남은기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이낙연 국무총리, 제14차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 주재 -

- 이낙연 국무총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를 14일 앞둔 1월 26일 (금)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4차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 대회 운영 준비와 대회 분위기 조성(붐업) 및 손님맞이 등 전반적인 준비 상황과 각 부처의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지원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 * 참석자 : ▲ 정부(교육부·과기정통부·통일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외교부2·국방부 차관) ▲ 관계 기관(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강원도 부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 평창 동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지원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대회 준비 및 개최 관련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 * 정부위원: 기재·교육·과기정통·외교·통일·법무·국방·행안·문체·농식품·산업·복지·환경·국토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 * 기타: 평창올림픽조직위원장, 강원도지사, 대한체육회장, 대한장애인체육회장

1.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 : 개·폐회식을 포함한 대회운영 차질없이 세밀하게 준비

-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위원장 이희범, 이하 조직위)는 이번 평창 동계올림픽이 동계올림픽 역사상 최대 규모의 올림픽으로 차질 없이 준비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 특히 전 세계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개·폐회식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완벽한 방한, 수송교통, 안전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 : 최근 올림픽 규모>

구분	2018평창	2014소치	2010밴쿠버
금메달수	102개	98개	86개
참가국	101개국(등록 기준) ※ 95개국 내외 전망	88개국	82개국
참가선수	2,958명(일부 변동 가능)	2,858명	2,633명

- 그리고 조직위는 대회 전반 운영을 관리하기 위해 종합운영센터(MOC, Main Operations Centre)를 운영하고 신속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 의사결정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 아울러 현재 각각 70%를 돌파한 올림픽과 패럴림픽 입장권 판매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올림픽의 열기가 패럴림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패럴림픽 홍보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2. 강원도 : 숙박가격 현재 하향 안정세 유지, 교통혼잡 최소화를 위해 대회기간 차량 2부제 실시

- 강원도(도지사 최문순)는 대회 기간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올림픽을 즐기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숙식, 경관 조성, 교통 등을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특히 강원도는 현재 숙박가격은 하향 안정세를 지속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2017년 11월 30일부터 운영하고 있는 ‘올림픽 특별 콜센터 1330’을 숙박예약의 해결창구로 운영해 숙박예약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또한 대회 기간에 올림픽 수송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도심지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량 2부제를 실시하며, 올림픽 전후 외국 방문객 유치를 위해 올림픽 연계 관광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3. 문화체육관광부 : 평화올림픽을 위한 북한 참여 대책 마련 및 대회 북업을 위해 총력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는 스포츠를 통한 상호 존중과 이해, 화해와 협력이라는 올림픽 가치와 정신을 실천하는 좋은 기회이며 특히 북핵·미사일 위기로 인한 해외 선수단의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 특히 이번 북한 참여는 남북 간 화해와 협력의 물꼬를 트고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문체부는 기본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가에 대해 국제올림픽 위원회(IOC), 종목별 국제연맹(IF)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다른 나라 선수단과 동등하게 대우하되, 남북관계 특성과 전례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종목별 국제연맹(IF)는 물론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 하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습니다.
- 한편, 문체부는 현재 꾸준히 늘고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대회까지 더욱 높이기 위해 대회 분위기 조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온라인, 신문·방송, 옥외, 정부 매체 등을 활용한 전방위 홍보를 진행하고 평창 동계올림픽·패럴림픽의 긍정적 이미지를 확산하기 위해 해외 홍보를 강화합니다.
- 평창 동계올림픽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이 부족한 평창 동계 패럴림픽을 대상으로 미디어와 한류스타를 활용한 홍보, 패럴림픽 스토리텔링 콘텐츠 제작 등 특화된 홍보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4. 통일부 : 북한 참가 평창올림픽 행사를 차질 없이 준비

- 통일부는 1월 16일 발족한 「정부합동지원단」을 중심으로 북한 예술단 공연, 금강산 합동문화행사, 마식령 스키장 공동훈련, 태권도 시범공연, 북한 응원단 응원,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등 평창올림픽 북한 참가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북측과 우리측 사전점검단의 방남·방북 일정도 원만하게 추진 되었다고 보고했습니다.
- 일련의 추진과정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준수하면서, 국제규정 및 관례, 남북 합의 등에 따라 북한 대표단의 체류기간 동안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인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고, 나아가 남북대화가 다양한 대화로 발전되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지속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습니다.